

'통증의 왕'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대비하세요



건강 바로 알기 대상포진

곽형준

광산구보건소 의무사무원

어느 날 갑자기 한 쪽 가슴이나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는데 걸어서는 아무 이상도 없고 병원에 가봐도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꼭 의심해봐야 할 병이 있다. 통증이 심한 피부병이자 신경 분포를 따라 생기는 병인 대상포진이다. 통증이 생긴 날로부터 1~3일 동안 매우 아프기만 하고 아무런 피부 변화가 없다가 이후, 아픈 부위 피부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며 조그만 물집(수포)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포들은 농포, 가피(딱지)로 변해가면서 정상 피부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후 신경 주위에 무증상으로 남아 있다가, 신체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 몸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

소아기에 남아있는 수두 바이러스 면역력 저하로 피부 발진 통증 유발 백신 2가지 비용·효과 고려해 결정 면역력 약해지는 50세 이상 권고

는 질환이다.

만약 통증이 생긴 부위에 1~3일 뒤 피부에 수포성 발진이 생겼다면 의사를 찾아 항바이러스제, 신경병증성 통증 조절 제제, 통증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연구 등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며 통증이 심한 경우 신경 차단 주사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이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잘 나타나며 대상포진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거나 미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예방 접종=이런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 중 요즘 많이 추천되는 방법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예

대상포진이란?
수두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

대상포진 증상

피부발진

발열,근육통

심한 통증

방접종에 쓰이고 있는 약독화 생백신에 해당되는 '조스타박스'와 '스카이 조스터'가 있고, 2022년 12월부터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 재조합 백신(사백신)인 '싱그릭스'가 있다.

약독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와 '스카이 조스터'는 1회 접종 비용이 평균 14~16만원 정도로 유



곽형준 의무사무원

전자 재조합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1회 접종으로 접종이 끝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율이 50~60% 정도로 낮고 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효과 역시 66.5% 정도로 낮으며 백신 접종의 장기효과가 낮은 게 단점이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접종이 금지되는 점도 단점에 해당된다.

최근 새로 도입된 유전자 재조합 백신(사백신)인 '싱그릭스'는 2회 접종이 필요하며, 1회 접종 당 평균 25만원(2회 접종시 50만원)이라는 고가의 비용이 가장 큰 단점이다. 하지만 대상포진의 예방율이 90% 이상이며 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효과가 89.8%로 보고돼 약독화 생백신에 비해 예방율이 높고 백신 접종의 장기효과도 높은 편이다. 사백신이기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면역력 약한 50세 이상·보건소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면서 대상포진에 대해 가장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하나?"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가?"이다. 대상포진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 병은 아니지만 심한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병이다. 나이가 젊은 경우는 대부분 면역체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은 60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50세 이상에게 권고되고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금까지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일부 지자체들이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라 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방접종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백신의 종류별로 장단점이 다르므로, 접종이 권고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국제학술대회 수상

이근배·이건우 교수팀 '임상'·선종근·양홍열 교수팀 'CiOS'

전남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들이 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이근배·이건우 교수팀과 선종근·양홍열 교수팀이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임상 학술상'과 'CiOS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근배·이건우 교수팀은 '인공발목관절 치환술 후 재수술의 위험요소인 골용해 연구'로 임상 학술상을 받았다. 이 연구는 발목관절염에 대한 인공발목관절 치환술 후 재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인 임플

란트 주위 골용해에 대한 유병률과 새로운 분류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결과다.

선종근·양홍열 교수팀은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재수술 원인의 17년간 변화 추이'로 'CiOS 학술상'을 수상했다. 선 교수팀은 지난 17여년 간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재수술의 원인과 경향의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근배 교수는 "인공발목관절 치환술 후 재수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인공관절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근배 교수



선종근 교수

조기 진단 및 치료 방법 등 종합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종근 교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치료에 전념하고, 그 결과들을 잘 정리해 좋은 연구 결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의사 소득 가파른 증가세...평균 2억6900만원

의사 소득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제정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6900만원이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간 9600만원(55.5%) 증가했다.

세법상 소득금액은 매출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원의'에 해당한다.

이들의 소득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에는 전년보다 3400만원 늘기도 했다.

2014~2021년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6만7867명에서 7만6673명으로 13.0%(8806명) 늘었다.

국내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의사들의 고소득은 눈에 띈다.

국세청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으로, 평균 사업소득 상위 20개 업종에서 의료업종이 16개를 차지했다.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의원'(기타 병리실험 서비스)이 9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했다.

이어 ▲일반의원(안과) 7억6400만원 ▲종합병원 6억8000만원 ▲요양병원 6억7200만원 ▲일반병원 6억1700만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의원(엑스레이 촬영 등) 5억1900만원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기독병원, 광주남부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은 최근 남부소방서와 병원자위소방대 합동으로 재난방지를 위한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소방합동훈련은 재해의학과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것을 가상해

진행했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즉 화재신고 및 전파, 초기진화, 환자대피유도 등 훈련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이어서 남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 훈련 및 응급구조가 이뤄졌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이창준 퍼스트이비인후과 원장, 유럽수면학회 전문의 취득

이창준(사진) 퍼스트이비인후과 원장이 광주·전남지역 처음으로 유럽수면학회(ESRS)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세계 3대 수면학회인 'ESRS'는 지난 2012년부터 수면학과 전문의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ESRS'는 고난도의 시험을 통해 정상 수면과 수면 생리, 불면증, 코골이·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등 다양한 수면 질환과 수면 다원 검사, 다중 수면잠복기검사(MSLT) 등 수면 관련 검사, 수면의학 기초 및 임상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그 자격을 부여한다. 이창준 원장은 전남대학교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진료교수(전문의)를 역임했으며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

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